

# 멈추는 유럽... 박물관도 공장도 모두 문 닫아

### 코로나19 확진·사망자 폭증

### 이탈리아 3만명 돌파

### 독일·프랑스 1만명 육박

### 각국 이동제한에 텅빈 도시

### 재정 풀어 충격 완화 안간힘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놓인 유럽 각국은 17일(현지시간)에도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전투를 이어갔다. 각종 공공장소와 기업, 상점 등의 문이 속속 닫히면서 유례없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각국 정부는 잇따라 재정을 풀어 어려움에 빠진 가계와 기업 돕기에 나섰다.

◇이탈리아 확진자 3만명 돌파...스페인도 1만명 넘어=코로나19 확진자를 실시간 집계하는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5분(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9만6771명으로 집계됐다.

유럽에서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1506명으로 전날 대비 3526명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45명 증가한 2503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스페인도 전날 대비 확진자가 1467명 증가하면서 1만명(1만1409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168명 늘어난 510명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확진자가 2080명 돼 우리나라보다 많은 9352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는 여전히 확진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24명으로 집계됐다.

프랑스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730명과 175명으로 전날 대비 1097명과 27명이 늘었다.

이밖에 유럽 주요국의 확진자 수는 스위스 2742명, 영국 1950명, 네덜란드 1705명, 노르웨이 1458명, 오스트리아 1332명 등으로 집계됐다.

벨기에(1243명)와 스웨덴(1191명)도 전날 대비 확진자가 각각 185명과 70명 늘어나면서 1000명을 넘어섰다.

◇이동제한에 사회적 거리 두기...텅 빈 유럽의 도시들=봄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북적여야 할 유럽 주요 도시의 박물관과 미술관, 관광명소에는 코로나19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유럽 각국이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취하면서 도시의 정상적인 기능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벨기에 정부는 18일 정오부터 최소 내달 5일까지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테이트 모던과 테이트 브리튼 갤러리, 영화상영관 등은 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동금지령 위반 단속과 코로나19 확산 제어를 위해 이날부터 경찰관 10만명을 투입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공연 예술의 상징인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이 코로나19 여파로 4월 10일까지 예정된 모든 공연과 연주회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폴크스바겐 등 주요 공장도 가동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했다.

◇'경제 충격 막자'...각국 재정 풀어 가계·기업 지원=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00억 파운드(약 45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영국 정부는 이날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3300억 파운드(496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모기지(담보대출) 3개월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생방송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총 2000억 유로(274조원) 규모의 긴급지출 계획을 내놨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날 저녁 방송된 대국민 담화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 3000억 유로(411조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거리 시민 단속하는 파리 경찰.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경찰관들이 17일(현지시간)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폴크스바겐 신차 주차장 가득. 17일(현지시간) 독일 초버카우에 있는 폴크스바겐 공장 주차장에 출하되지 못한 신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 바이든 파죽의 4연승 대세론 굳히기

### 플로리다·일리노이·애리조나 3개주 경선 '씩씩이' 압승

미국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7차 경선을 씩씩이하며 독주 체제를 더욱 굳혔다.

민주당 경선이 '바이든 대 샌더스' 구도로 압축된 가운데 바이든이 지난달 29일 4차 경선 이후 거침없는 4연승을 달리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밀찍이 제치고 대선 후보 고지에 한층 다가섰다.

이날 경선은 플로리다와 일리노이, 애리조나 등 3개 주에서 치러졌다. 오하이오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경선을 전격 연기했다.

CNN방송과 AP통신 등 외신은 개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3곳 경선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219명의 대의원이 배정된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93% 개표 현재 61.7%의 득표율을 올려 22.9%의 샌더스 의원을 압도했다.

일리노이는 84% 개표 기준 바이든이 59.1%로 샌더스(36.1%)를 크게 앞섰다. 애리조나도 개표율 67% 상황에서 바이든이 42.4%의 득표율로 샌더스(29.5%)를 앞서고 있다.

바이든은 이날 경선지 3곳의 씩씩이로 지금까지 경선이 치러진 27개 주 중 19곳에서 승리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샌더스는 초반 경선지를 중심으로 7곳을 건진 수준이다.

CNN에 따르면 이날 경선 직전까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확보한 대의원은 853명이며, 샌더스는 700명이었다.

이날 경선에 배정된 대의원은 모두 441명으로, 바이든이 승리를 확정할 경우 샌더스와의 대의원 격차는 더욱 커진다.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매직 넘버'는 1991명으로, 이날 개표가 끝나면 전체 대의원의 60%정도가 확정된다. 바이든이 매직 넘버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된다. /연합뉴스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진자 확산

### 고온다습한 날씨와 무관한 듯

코로나19 확진자가 날씨가 덥고 습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계속 늘고 있다.

18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2명, 말레이시아는 673명으로 각각 늘었다. 싱가포르의 243명, 필리핀 187명, 태국 177명, 베트남 61명, 브루나이 54명 등이다.

동남아시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말레이시아 경우 지난 9일까지만 해도 99명으로 두 자릿수였지만, 2월 28일~3월 1일 쿠알라룸푸르 스리 페탈링 이슬람사원에서 1만6000여명이 참석한 종교 행사에서 집

단 감염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확진자 673명 가운데 3분의 2를 비롯한 브루나이 50명, 싱가포르 5명, 캄보디아 13명, 태국 2명 등이 행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감염됐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기록했으나 지난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현재 감염자가 172명까지 늘었다.

일각에서는 '고온다습한 기후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할 것'이라며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근 동남아시아의 확진자 증가 속도로 볼 때 근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연합뉴스

# 日 코로나 부양책, 전국민에 현금 지급 검토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조만간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일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이어진 소비 부진의 영향을 고려해 2009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의 충격에 대응할 때 배포했던 것보다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2009년보다 지급액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이 대두하고 있으며 아베 총

리는 17일 열린 자민당 양원(중의원·참의원) 의원 총회에서 "과감하고 강대한 경제정책을 전례에 구애받지 않고 대담하게 손질해 가자"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정부는 2009년에 1인당 1만2000엔(13만 8600원)을, 만 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엔(23만 900원)을 지급해 총액으로 2조엔(23조 864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받은 돈을 저축하는 바람에 소비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연합뉴스

# "부양책 크게 갈 것"...트럼프, 미국민에 1천불 현금보조 추진

### 친문학적 부양책 시장 안정화

### 급여세 면제 대신 현금보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금보조를 포함한 '통큰' 경기부양책을 약속했다.

AP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 참석,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우리는 크게 가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8500억달러, 최대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놓고 의회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인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고, 대통령은 현금을 지급하길 원한다"며 "앞으로 2주 이내에 수표를 제공할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노동자를 위해 업무 중단 급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인 1명당 1000달러의 현금보조 가능성을 거론한 보도를 의식한 듯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조금 더 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부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며 1000달러 금액을 언급하기도 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개인 100만달러, 기업 1000만달러까지 모두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90일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 "모든 사람이 열려 있을 희망한다"며 주식시장이 개장된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한 뒤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개장) 시간을 단축할 시점에 이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